

투데이 칼럼

북조선실록 200권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 사건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폐쇄된 북한 사회의 특성상 알기 쉽지 않다. 제한된 정보의 출처 또한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북한의 속사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료 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북조선실록'이란 책이 남한에서 2018년부터 간행되고 있다. 다양한 북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한 사료집이다. 최근 무려 200번째 사료집이 나왔다고 한다. 그 무렵에는 한 학자의 집념이 있었다.

'북조선실록'은 북에서 발행한 신문, 출판물 등의 기본 자료를 하루 단위로 정리해 놓은 북한계 조선왕조실록과 같다. 북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로 찾는다.

냉전 초기 소련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도 꼭 필요한 자료다. 이 기록들은 외국 학자들이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북조선실록에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에서 모인 각종 사료들이 총망라돼 있다. 책에는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녘 땅의 역사적 사실들이 담겨 있다.

북조선실록은 20년 이상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8년 세상에 나오기 시



정복규
논설위원

작했다. 올해 7월 200번째 책이 출판됐다. 1945년 8월 15일 1권이 시작해서 200권에 이르면 1957년 4월 17일에 끝났다.

그리고 201권부터 계속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료집 한 권의 평균 분량은 800쪽, 글자 수만 98만 자에 달한다. 200권 전체의 글자 수는 대략 1억 9천만자 정도다. '조선왕조실록' 한글 번역본을 넘어선 분량이다.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의 주요 기관지와 분야별 잡지, 외교문서 등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여기엔 중요한 일치가 있다. 소장처라든가 발행 주체가 불분명한 것은 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조선실록을 통해 북한의 역사적 사실도 하나둘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핵과 미

사일 개발 역사다. 북조선실록 191권에는 1950년대 북한의 핵 연구 과정이 기록됐다.

또 다른 실록에선, 현재 북한이 선전하는 사실과 전혀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민정대는 북에서 혁명의 성지로 떠받드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1946년, 소설가 한설야가 묘사한 생가는 현재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국사를 전공한 국내 어느 교수가 북한 사료집을 편찬하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해 나가며, 북조선실록이 통일외교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 것이다.

방대한 사료를 모으고 정리해 책으로 출판하기까지 주위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북조선실록의 편집 작업실

에는 다섯 명의 편집자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도용도 받을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언더리 가짜정보들도 요새는 많이 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1차 문서들을 볼 때는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있다고 한다.

북조선실록 편찬 작업은 뜻을 모은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출판 작업과 함께, 북조선실록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돕기도 한다. 무엇보다 북조선실록이 가지는 의미에 공감했다고 한다.

북조선실록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일이다. 집필가의 집념을 발휘해, 언젠가 다가올 통일시대까지 북조선실록의 작업을 이어가기 바란다. 통일이 되면 다시 역사는 새롭게 쓰일 것이다.

그때 북조선실록이 새로운 통일 실록을 쓸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북조선실록 글자 하나하나에 새겨진 남다른 노력과 열정이, 통일실록이라는 결실로 열매 맺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기록되고 기록하는 것이다. 북조선실록이 빛을 보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사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 문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히면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운영사 변경을 통해 해고 등 구조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풀이라며 비판했다.

해고된 노동자 11명은 그동안 음폐수 반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노동자들은 8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불법 해고'라는 진실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이 거리로 나왔은 것은 지난 1월 3일이다. 예코비트위더에서 운영 공동출자사인 성우건설로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우건설이 고용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면서 복직의 희망이 보였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에서 배제한 행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노조

원들로 한정된 것을 볼 때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후 최근 열린 중노위는 지노위의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인정한다고 판정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운영사 변경의 경우 기존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고된 이들이 모두 노동조합 소속인데다 작업장 안전 문제를 지적해왔던 터라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월 폭발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음폐수 과다 반입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고발하면서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제 제기를 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되자마자 중단됐던 타 권역 음폐수 반입이 다시 시작됐다. 결국 폭발 사고로 이어진 사실이 보복성 해고를 방증한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길 위에 쓰러진 환경관리원

8월부터 전주시는 특정 구역의 음식물과 재활용 등 모든 쓰레기를 한 업체가 담당하는,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원이 폭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환경관리원들은 기존에 비해 인력과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전주시가 민원 처리만 압박하고 있어 업무를 소화할 수 없는 상태라고 호소한다.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8월 23일 뜨거운 도로 위에 한 남성이 쓰러져 오열하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남성은 탈진 증세를 보여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다.

환경관리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은 다세대주택 단지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에서 이뤄지는 쓰레기 수거는 평범 아래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과 유리

병 등이 담긴 5개의 그물 묶음을 하나하나 빼내고 다시 빈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만 수백 번 반복한다.

수거한 그물 묶음들은 일일이 옆 도로에 정차해둔 차량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좁은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 사이로 2.5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된다.

환경관리원들은 이처럼 변수가 많은 현장임에도 인력과 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쓰레기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권역별 청소책임제'가 시행된 후 바뀐 구역은 기존보다 면적만 3배가량 넓어졌지만 마찬가지로 2.5톤 차 한 대의 몫이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을 주면서, '현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인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기존 청소 업무를 진행하면서, 새 업무를 숙지하 기간 불가능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신종범죄 딥페이크를 아시나요?

최근 각종 뉴스나 SNS에 등장하는 단어 딥페이크 관련 무엇일까?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친 말로 인공지능(AD)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로 보통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보다 하나의 장난 또는 유행이라고 여겨져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악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는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 조치하고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구보민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獨 뮌헨 이스라엘영사관 상공 순찰하는 헬리콥터



독일 뮌헨주재 이스라엘 영사관 인근에서 경찰이 총을 들고 배회하는 의심스러운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힌 후 영사관 지역 상공을 헬리콥터가 비행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